

2022 기독교대한감리회 평신도

월례회 공과

자랑스러운 **한국감리교회** 열두가지 이야기

•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감리회 •





감리교회는 이 땅의 모범이었습니다!

감독회장 이 철

코로나팬데믹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전염병과 함께 하는 일상이라는 것이 낯설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아픔이 점점 내 주변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픔과 지내고 있습니다. 불안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존 웨슬리가 이 땅에서 떠나기 전 마지막 들려준 말입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 된 감리교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며 교회부흥과 사회갱신에 앞장서는 실천신앙의 모범이었던 한국감리교회의 평신도들은 이제 또 다른 선교시대를 내다보며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살피고 해결하려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한국감리교회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념적으로 심하게 나뉘어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존 웨슬리가 기도하며 추구해 온 ‘다양성 속의 일치’,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의 조화’와 같은 소중한 신앙전통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해와 일치의 신앙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평신도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신앙회복, 복음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월 모임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여 오늘의 상황에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평신도월례회공과”가 정말 멋지게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한국감리교회의 역사를 아름답게 장식한 평신도들은 순수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교회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신도월례회공과”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을 주제로 존 웨슬리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감리교회의 교리와 실천적 토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한국감리교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했고, 초기 감리교인들의 신앙생활 중 자랑스러운 장면 12개를 준비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철저한 헌신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장면들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한국감리교회 평신도운동이 230년전 웨슬리의 염려를 뛰어넘어 2022년, 올해도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감리교회”로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회평신도국 위원장 **이광호** 감독

서
문



지난 1년여 세월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한국사회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큰 손실과 아픔을 경험해 왔습니다. ‘코로나 19’로 점철된 2021년도를 지나 새해가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여는 첫 해가 될지 설레임과 긴장이 혼재된 가운데 맞습니다.

역사학자 E. 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과거를 비추어 현재를 배운다는 것은 또한 현재에 비추어 과거를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감리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며, 한국교회에서의 감리교회의 위치와 그 사명, 특히 감리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내용을 평신도월례공과를 통해서 접하게 된 일은 아주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감리회’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평신도들에게, 감리회 선배 신앙인들과 연관된 신앙이야기들은 믿음의 선배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들 간의 긴 역사적 시간들을 연결시키는 다리의 교각, 또는 세월의 간격을 메꿔주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본 공과에서 만나게 되는 선배들과 그분들의 값진 이야기들은 밤하늘에서 빛나는 별과 같습니다. 위기에 직면했던 나라와 민족 앞에서 큰 모범과 헌신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시대적 도전과 시련에 직면하여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선배들의 소중한 신앙과 삶의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용기와 믿음, 말씀에의 순종과 결단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감리회 성도들에게 좋은 지침을 제공하는 공과를 집필해 준 유성종 목사와 수고한 손길에도 주의 은총이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요한복음 3:21)라는 말씀처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빛을 발하는 감리회 평신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1단원

감리교가 들어오기까지

1월

하나님의 손길(1) 한국을 향하다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성경봉독

시편 37:3~24

요 절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5)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으로서 ‘거룩한 마음, 거룩한 삶’을 세워가기 위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감리교회의 역사 속에서 ‘거룩한 마음, 거룩한 삶’을 세웠던 믿음의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장면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본받아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실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 계획보다 더 우선인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태도’입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기에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감리교회의 역사는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한국에 감리교회가 전파된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개방과 개혁의 시대적 흐름, 안정과 보수의 전통적 흐름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던 1882년, 한미수호조약의 체결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외교관계가 수립되었고, 1883년 5월에 주한 미국공사로 푸트가 부임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민영익을 단장으로 ‘보빙사절단’이라는 외교사절단을 미국으로 파견하여 양국의 외교관계를 확인하고 미국의 정치, 사회, 문화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사절단이 샌프란시스코항에 도착한 후 기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가던 중 이들 일행을 보고 먼저 대화를 시도한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볼티모어에서 목회하고 있던 30대 후반의 가우처 목사였습니다. 가우처 목사는 교육사업과 동양지역선교에 관심을 갖고 볼티모어에 흑인을 위한 모건대학과 여자대학, 중국 복주에 중서서원, 일본에 미감리회신학교, 아오야마학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사절단을 본 그는 서양인과는 다른 옷차림의 동양인에게 먼저 대화를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사절단장 민영익으로부터 교육분야에서 미국선교사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가우처 목사는 한국선교의 때가 온 것으로 확신하고, 1883년



11월 자신이 속한 미감리회 해외선교부에 선교비 2,000달러를 보내면서 한국선교를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미감리회 해외선교위원회는 가우처 박사의 2,000달러에 3,000달러를 보태 5,000달러를 한국선교비로 책정하고 일본선교부에 편입시켜 한국선교에 착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일본 주재 선교부 책임자였던 매클레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매클레이는 한국선교를 위해 곧바로 한국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우처 박사만이 아니라 매클레이도 한국선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1896년 매클레이의 회고를 보면 **“가우처 박사의 편지를 받는 순간 오랫동안 간직해 왔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편지를 받자 저는 하나님의 소명을 강하게 느꼈으니, 이는 한국에 기독교 선교의 문을 여는 데 저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1848년 매클레이는 선교사로 중국에 도착한 직후 난파당해 중국 어부들에게 구출되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한국 어부들을 복주 거리에서 보고 선교적 관심을 가졌으나 중국선교개척에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에 더이상 신경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후 중국선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던 1872년, ‘제너럴서먼호’사건에 대한 정치 군사적 응징으로 한국에 파견되었던 극동아시아 함대가 귀환하였는데, 이 함대는 ‘신미양요’라 불리는 강화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일으킨 함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클레이는 미감리회선교부에 ‘군대 대신 선교사를, 무기 대신 복음을 보내자’라며 한국선교를 촉구하는 글을 써서 보내고 언론에도 발표했지만 별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매클레이는 1882년에 일본 도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일본 정계의 유력인사 소개로 한국의 고위 정치인 ‘김옥균’을 만납니다. 김옥균으로부터 영어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락, 김옥균을 비롯하여 일본에 도착한 한국 청년들은 매클레이 부인에게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 매클레이는 한국선교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884년에는 또다른 한국인 이수정을 만나 감리교 교리서인 『미이미교회문답』 전도문서인



1883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보빙사절단의 공식 기념사진 (뒷쪽 중앙이 유길준, 아래줄 왼쪽 첫 번째가 홍영식, 두 번째가 단장 민영익)

『천도소원』 등의 한글판을 출판하였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관련된 상황이 있었기에 1883년 말 미감리회 해외선교위원회의 한국 선교결정 사실과 선교가능성 탐색요청을 받았을 때 주저없이 한국방문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북

주에서 난파당한 조선 어부들을 보고 선교적 관심을 가진 지 37년 만에 한국선교 개척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1883년 당시 미국교회는 로스와 루미스를 통해 만주와 일본에서 이루어진 한국인 개종이야기와 성경번역사업에 대한 정보를 접수했고, 한국의 ‘마게도니아인’으로 알려진 이수정이 미국 교회에 보낸 선교사파송요청 편지도 한국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에 감리교회가 전해진 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가우처 목사가 기차 안에서 ‘낯선 이방인’ 보빙사절단 일행을 만난 것, 매클레이의 마음에 한국선교를 심어주신 것 역시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었습니다. 매클레이의 내한으로 선교가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 복음선교와 사회개혁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우처와 보빙사절단이 기차에서 만난 때와 매클레이가 가우처의 편지를 받고, 미감리회 해외선교위원회로부터 한국선교결정을 통보받았던 당시는 이미 미국교회가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국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때였습니다. 이렇듯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때를 위해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아야 합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한국감리교회의 전래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2. 우연히 겪은 어떤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찬 송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토의 및 광고 사회자
주 기도 문 다함께

제1단원

감리교가 들어오기까지

2월

하나님의 손길(2)

감리교 선교의 문을 열다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성경봉독	잠언 16:1~9
요 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지난 시간 우리는 한국에 감리교회가 전해진 것이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만날 장면 또한 철저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고종으로부터 교육과 의료사업을 허락받는 과정은 인간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우처 목사와 보빙사절단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한국선교는 매클레이에 의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884년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2주간 매클레이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한 반도를 둘러싸고 패권을 다투는 열강들과 중국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보수파와 신흥근대국가로 떠오른 일본을 모델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개화파의 갈등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 매클레이는 한국정부로부터 공식경로를 통해 선교허락을 받기 위해 방문한 것입니다. 푸트 공사의 도움으로 정부의 주요 보직에 있는 인물들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1주일도 지나도록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고, 나가사키에서 채용한 통역 겸 안내인이 정부 내의 보수세력과 연결된 인물이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매클레이는 외교 통로를 이용하기로 하고 푸트 공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한 푸트 공사는 내키지 않는 자세로 외교를 담당한 통리교섭아문(외교부)에 연락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교섭아문에서 나온 관리가 김옥균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옥균은 일본에서 매클레이 부인에게 영어를 배운 제자였고 우승지로 매일 승정원에 나가서 고종과 나랏일을 논의할 정도로 신임이 두터운 인물



매클레이와 김옥균, 푸트 공사 등이 만나는 모습

었습니다. 매클레이는 당시 김옥균과의 만남을 ‘인간의 극한 상황이 하나님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김옥균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는 한편 그가 왕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7월 3일 과감히 그를 방문했다. 그는 나를 매우 친절히 맞아 주었고, 곧바로 왕이 지난 밤에 그 편지를 신중하게 검토했으며 내 요청에 따라 우리의 선교회가 한국에서 병원과 학교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주었다.”(이만열 역, 『교회사자료:매클레이 목사와 한국선교』, 기독교사상(1984.7), 176p.)

그리고 일반 선교가 아닌 학교와 병원사업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문건을 김옥균을 통해 고종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옥균은 푸트 공사 집무실에서 “**주상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며 고종의 허락을 매클레이에게 알렸습니다. 이날 푸트 공사의 통역으로 현장에 있었던 윤치호는 이튿날 한자로 일기를 남깁니다. 풀이하면 “**주상께서 미국 상선의 내해 항해와 미국인들이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는 일, 전신설치의 일을 허락하시다**” 입니다.

매클레이가 선교 허가를 받은 1884년은 미국감리교회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감리교회가 조직된 지 100주년을 맞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한국선교 개척자로 임명받은 선교사인 아펜젤러 부부와 스크랜턴 모자선교사가 경유지인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한 것은 이듬해인 1885년 2월 27일이었습니다. 매클레이는 가우처가 보내온 선교비를 푸트 공사에게 주어 미국공사관과 가까운 곳에 선교사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뿐 아니라 1884년 가을부터 이수정의 도움을 받아 감리교의 교리문답서인 『미이미교회문답』과 『량자회개』등의 문서를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여 한글번역본 1,000부를 발행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여 활동할 선교사들을 위해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고종으로부터 선교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매클레이와 김옥균의 만남은 극적이었습니다. 매클레이는 선교 허락을 받기 위해 잘 준비하여 한국을 방문하였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일본에서 만났던 김옥균을 다시 만나게 하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국감리교회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감리교회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묻는다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한국 근대사회발전에 영향을 끼친 교회의 활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 큰 장애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까?

찬 송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토의 및 광고 사회자
 주 기도문 다함께

제1단원

감리교가 들어오기까지

3월

하나님의 손길(3) 방향을 바꾸다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성경 봉독	에베소서 1:15~19
요 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에베소서 1:18)



1884년 12월 삼일천하로 끝난 갑신정변은 기독교선교에 장애가 될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클레이를 도와 선교허락을 받아낸 김옥균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주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큰 부상을 당해 사경을 헤매던 수구파의 거두 민영익을 살려낸 사람이 미국 공사관 전속의사이자 미북장로회 선교사였던 알렌이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민영익을 살려낸 것이 기회가 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의료기관인 광혜원이 생기게 되었는데, 광혜원이 한 국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허락을 받은 4월 3일, 일본 나가사키를 떠난 배 한 척이 서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정식으로 파송된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근대 한국의 선구자’라는 칭호를 받는 아펜젤러(H.G.Appenzeller) 선교사는 한국감리교회의 모교회인 정동제일교회를 설립하고 한국근대교육의 발상지가 된 배재학당을 설립하였으며 성서공회와 예수교서회 등 초교파연합사업의 기초를 놓음으로 한국기독교선교의 기반을 닦고 성경번역작업을 하러 목포로 가던 중 군산앞바다에서 해상조난사건으로 순직한 감리교회 대표적인 선교사였습니다.

아펜젤러는 원래 일본으로 선교지를 정하였다가 한국으로 바꾸었습니다. 스위스의 용맹스런 전사 ‘아펜젤’가문 출신으로 5대조 할아버지가 청교도 이민 당시 미국으로 이주하여 독일과 네덜란드의 개혁신교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던 펜실베이니아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도 자연스럽게 개혁신교회 전통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개혁신교회 계통의 프랭크마살대학에 재학 중이던 1879년 4월, 영적불안을 느끼던 아펜젤러는 랭커스터제일감리교회에 나가면서 감리교회의 기도모임과 속회활동을 통한 경건운동에 감동을 받아 감리교회로 신앙의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이후 감리교계통 드루신학대학에 입학하였고, 기회가 주어지면 선교사로 나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드루대학에서 만난 위즈워드와 같은 기숙사방을 사용하였는데 위즈워드는 한국

을, 아펜젤러는 일본을 선교지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전사 가문출신이었기에 일본의 전통 무사계급인 사무라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소식과 근대화라는 세계의 흐름을 적극 수용하여 정치, 사회, 문화적 개방을 추진하는 일본에 매력을 느꼈던 반면 토마스 선교사를 무참하게 죽이고 이를 추궁하러 간 미국함대를 공격하고 여전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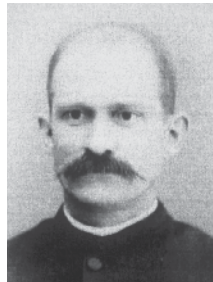
히 ‘은둔국’으로만 알려진 나라 한국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1883년 10월 어느날 한국선교에 열정을 보이던 위즈워드가 개인사정으로 선교사지원을 포기하자 이를 위로하러 갔다가 위즈워드의 고뇌에 찬 표정에서 ‘네가 대신하여 한국에 갈 수 없겠느냐?’는 호소를 읽었지만 이미 일본으로 결정했기에 쉽게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883년 10월24~28일 코네티컷주 하트퍼드에서 개최된 전국신학교연맹 주최 선교집회에 드루신학교 대표로 참석한 아펜젤러는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 위즈워드 대신 한국에 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칼뱅주의에서 웨슬리주의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선교지의 방향이 바뀌는 체험을 한 아펜젤러.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펜젤러와 함께 한국선교 개척자로 파송된 스크랜턴 모자선교사(어머니 메리 스크랜턴과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도 직접 선교지에 나갈 생각조차 없던 이들이었습니다. 교육과 의료사업을 통해 선교 허락을 받은 상황에서 그 사업을 감당할 교사와 의사 선교사가 필요했지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1884년 초 평소 해외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 후원회도 조직하며 활동했던 메리 스크랜턴의 집에 미감리회 해외선교 관계자가 방문했습니다. 그가 거실에서 메리 스크랜턴의 며느리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남편과 함께 한국에 선교사로 나가

볼 의향은 없는지요?”라고 물었는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을 하며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 해 여름 윌리엄 스크랜틴이 장티푸스에 걸렸고, 딸까지 전염되어 어머니 스크랜틴은 아들을 돌보고, 딸



메리 스크랜틴



윌리엄 스크랜틴

은 윌리엄 스크랜틴의 아내가 간호를 맡았습니다. 회복이 된 후 윌리엄 스크랜틴은 아내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면서 “여보, 나 선교사로 나갈 생각이요, 남은 내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소. 중앙아프리카를 제외하고 어디든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갈 생각이요”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침묵하다가 “당신이 가는 곳이라며 저도 가겠어요. 거기에 제 뼈를 묻겠어요”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윌리엄 스크랜틴 부부는 선교사로 나갈 결심을 했고, 어머니 메리 스크랜틴도 미감리회 해외여성선교부에 선교사로 지원하여 3대에 걸친 일가족 4명이 한국선교사로 파송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병상에서 이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윌리엄 스크랜틴은 예일대학과 뉴욕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클리블랜드에서 개업했던 장래가 촉망되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한 살 짜리 딸도 있는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안정적인 조건들을 내려놓고 주변을 정리하고 선교사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뉴욕 해외선교본부에서 파울러 감독에게 목사안수를 받았는데 이날이 1884년 12월 4일, 한국에서는 김옥균을 중심으로 하는 개화파가 일으킨 갑신정변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아펜젤러와 스크랜틴 모자선교사의 한국행 역시 한국감리교회의 다른 장면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그것에 응답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감리교회의 자랑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과 부름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아펜젤러와 같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경험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2)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구나!'라고 경험한 것을 말해보세요.

찬	송	406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토의 및 광고		사회자
주 기도 문		다함께

제2단원

뿌리내리는 감리교회



4월

이완용의 집에서 독립선언을! 태화사회관 이야기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89장 사론의 꽃 예수

성 경 봉 독

사무엘상 7:5~14

요 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사무엘상 7:12)

봄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자연의 봄기운처럼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지금도 ‘삼일절’로 지키고 있는 독립만세운동이 그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군주 즉 황제가 중심이 되어 수직적인 질서가 주를 이루는 제국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국,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이루는 국가체제로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상황이었기에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밖에 없었지만 민국으로의 변화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독립만세운동의 중심에 태화관이 있습니다. 민족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태화사회관 (1939년)

종로2가 종각역에서 조계사 방향, 인사동 쪽 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면 태화복지재단 빌딩이 있습니다. 빌딩 입구에는 삼일 독립선언유적지라고 새겨진 커다란 표석과 독립선언서 전문이 새겨진 철판

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화가 1921년 4월 인사동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태화 안에 있던 ‘별유천지’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안의 명물이었습니다. 친일파의 상징적인 인물 이완용의 집이었고, 2년 전인 1919년 기미년 만세운동사건 때 민족대표 33인 중 29명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미년 3월 1일 정오, 독립만세운동 당시 태화관의 실소유주는 매국노의 상징이었던 이완용이었습니다. 그는 온 나라가 어지러울 때 권력을 이용하여 이곳을 차지하였으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욕을 하고 침을 뱉으며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심 한복판의

태화관을 요릿집 명월관에 세를 주고 번두리로 이사가서 살던 중 만세운동이 일어났으니 이완용의 심정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완용은 집을 내놓았고 마침 남감리회 여선교부에서 한국의 여성들을 위한 사회선교를 추진할 공간을 찾고 있었기에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족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식을 한 곳, 그래서 ‘민족의 성지’로 불렸던 곳은 별유천지 6호실이었습니다. 태화관의 넓은 공간에 있는 집 중의 집, 정치 중의 정치였던 ‘별유천지 6호실’. 1937년 새롭게 건축을 하면서 없어졌고 지금은 도시의 빌딩 숲 사이 아스팔트로 뒤덮여 아름다웠던 별유천지의 모습을 그려낼 수 없지만, 빌딩 입구의 기념비와 빌딩 로비에 걸려 있는 민족대표가 모여 앉은 기념 그림은 1919년 기미년에 ‘별유천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장면이 또 있습니다. 남감리회 여선교부가 이완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지불하여 소유가 이전된 것이 1920년 11월이었습니다. 소유가 이전되었지만 이전에 이완용과 전세계약을 맺은 명월관측에서 기간이 남았으며 집을 비워주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삼일운동 이후 명소가 되어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며 장사가 잘되었으니 쉽게 집을 비워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계약이 된 9월부터 마이어스 선교사는 한국인 동료들과 방을 차지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에 질세라 화장품 냄새 가득한 기생들과 술 냄새 풍기는 남자들을 선교사가 있는 방으로 보내어 조롱과 모욕으로 견디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와 한국의 전도부인들은 흔들림 없이 견디며 싸웠습니다. 싸움이 장기화되자 양주삼 목사가 청년교인들을 동원하여 명월관 깃발을 내리고 교회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음식집이 폐업한 줄 알고 손님도 오지 않을 것을 기대했지만, 명월관에서도 직원들을 동원하여 교회 깃발을 내리고 다시 명월관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며칠 동안 밤새 깃발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양주삼 목사가 별유천지의 새 소유주인 남감리회 여선교부가 미국 국적임을 내세워 성조기를 내걸자 명



순화궁의 옛 모습

월관 측이나 그동안 드나들던 고관대작들도 미국이 관련된 외교적 사건으로 커질 것을 두려워하여 떠났습니다. 1920년 성탄절, 마이어스 선교사와 리숙중, 박정화 등 명월관 측과 싸우며 자리를 지켰던 3인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어질러진 집안을 정리하고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세조의 조카사위인 능성부원군 구수영의 저택이 있던 곳, 그 후 여러 왕족과 권력있는 신하들이 들어와 살았던 곳, 광해군 때 반정을 일으킨 인조가 왕이 되기 전 살았다 해서 잠룡저(潛龍邸)로 불렸던 곳, 조선 말기 헌종때 귀빈 김씨가 들어와 살면서 순화궁으로 불렸던 곳, 1908년 궁내부대신 이윤용의 소유였던 곳, 1910년 한일합병 직후 그의 형 이완용의 소유에서 장안 제일의 요릿집이 되었던 곳, 그리고 삼일운동때 독립선언식이 거행됨으로써 ‘민족의 성지’가 되었던 태화관이 1921년 4월 ‘태화여자관’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마이어스 선교사가 건물의 옛 이름 태화관(太華館)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한자를 ‘泰和’로 바꾼 이유는 봉건시대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억압과 멸시를 받아온 한국 여성들이 기독교복음을 받아들이어 ‘큰 평화’를 누리고 봉건사회에서는 함께 할 수 없었던 양반과 천민, 부자와 가난한 자,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고, 나누고, 도와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조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큰 평화(Great Peace), 아름다운 조화(Great Harmony)’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태화여자관은 우리나라 근대복지의 시작입니다. 태화를 빼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태화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조화를 보여주는 우리 감리교회의 자랑이자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증거입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태화사회관(현 태화빌딩)과 관련된 사건을 말해보세요.

2) 감리교회가 시작한 사회사업기관을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찬	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토의 및 광고		사회자
주 기도 문		다함께

제2단원

뿌리내리는 감리교회

5월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초기 교인들의 신앙실천운동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성경봉독	에베소서 2:13~22
요 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 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에베소서 2:19)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혈연과 지연을 뛰어넘어 실제로 한 가족됨을 드러낸 사건이 초기 감리교회 역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단순히 호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발뒤꿈치’를 의미하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함을 상징하는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남의 발뒤꿈치를 잡아채며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된 삶을 상징합니다. 초기 감리교회 역사에서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난 뒤 이름을 바꾸면서 삶이 바뀐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강화 초기 교인들의 이름에는 재미난 규칙이 있습니다. 박능일, 권신일, 종순일 등 이름에 한 일(一)자가 똑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이름들을 통해 강화 초기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고 이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1890년 후반, 강화도 북쪽 홍의마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훈장이었던 박능일이 옆 동네 다리목의 김상임이 기독교를 받아 들였다는 말을 듣고 따지러 갔다가 도리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서당을 처소로 삼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교인이 된 것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듯 거듭난 우리가 새 이름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라며 이름을 바꿉니다. “집안은 서로 다르지만 한 날, 한 시에 세례를 받아 한 형제가 되었고, 이 마을에서 처음 믿었으니 모두 한 일(一)자를 돌림자로 하자” 하여 조상에게 물려받은 성(姓)은 그대로 두고, 마지막 글자는 ‘한 일’로 통일하고 가운데 글자만 정하여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다. 성경에서 글자를 선택하여 [믿을‘신’(信), 사랑‘애’(愛), 능력‘능’(能), 은혜‘은’(恩), 은혜‘혜’(惠), 충성‘충’(忠), 기록할‘성’(聖), 바랄‘희’(希), 받들‘봉’(奉), 착할‘순’(純), 하늘‘천’(天) 등] 글자를



강화 홍의교회

적은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함께 기도한 후에 제비뽑기를 통해 가운데 글자를 정했습니다. ‘애’자를 뽑으면 ‘애일’, ‘성’자를 뽑으면 ‘성일’,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홍의교회의 박능일(朴能一), 권신일(權信一), 권인일(權仁一), 권문일(權文一), 권청일(權靑一), 권혜일(權惠一), 김정일(金敬一), 김부일(金富一), 종순일(鍾純一)같은 이름이 나왔고, 이런 개명 현상이 강화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강화읍교회의 김봉일, 김각일, 김애일, 박성일, 주광일, 주선일, 건평교회의 정천일, 정서일, 망월교회의 노권일, 김성일 등 강화 초기 역사에서 ‘일’자 돌림의 이름을 가진 교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자 뿐 아니라 교동 섬에서는 믿을 ‘신(信)’자를 돌림자로 하여 방달신, 방도신, 서중신, 황복신, 황초신 등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초기의 강화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으면서 새로 태어났다는 마음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자간에도, 형제간에도, 삼촌과 조카간, 처남과 매부간에도 같은 돌림자를 사용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돌림자는 친족간의 촌수와 항렬을 알려주는 단서였는데 부자간에도 같은 돌림자를 사용함으로 인해 전통적인 질서를 깨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강화 초기 교인들은 검정색 옷을 입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흰옷을 즐겨 입는 습관 때문에 ‘백의민족(白衣民族)’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구한말 개화의 바람을 타고 기독교가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는 생활풍습의 변화가 일어났습

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온 서양선교사들의 의복 생활은 개화의 표본이 되어 교인들은 흰옷에 검정색으로 물을 들여 입기 시작했습니다. 흰옷보다 검정옷은 때도 덜 타고 실용적이었기에 강화의 교인들은 모두 검정옷을 입었습니다. 흰옷을 입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교인들의 검정색 옷은 두드러졌고 주일이면 검정옷을 입은 교인들이 줄을 지어 예배당으로 들어서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들을 ‘검정 개’라고 부르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검정’은 옷 색깔 때문이었고, ‘개’는 같은 돌림자를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유교 전통 속에서, 족보를 따지지 않는 동물처럼 아버지와의 아들이, 삼촌과 조카가 같은 항렬이 되어버린 교인들의 가족관계가 속된 말로 ‘개족보’같이 된 형국이었고, ‘패륜적’인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됨을 생활 속에서 실천했던 강화 초기 교인들은 ‘검정 개’라고 불리며 조롱당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천주교에서처럼 성경 속 인물의 이름으로 세례명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작명법에 맞추어 같은 돌림자를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는 신앙표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항렬을 완전히 무시하는, 전통을 파괴하는 과감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강화의 초기 교인들은 이렇게 신앙을 과감하게 표현했습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잘라야 할 것은 과감히 잘라내는 ‘단절’을 했지만, 그 속에서 이어가야 할 것은 분명하게 ‘연결’하며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새 이름을 짓고, 검정 옷을 입으며 예수 안에서 한가족됨을 과감하게 보여준 강화 초기 교인들은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생활신앙으로 나타낸 증인들입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세례받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말해보세요

2) 초기 교인들처럼 구체적으로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말해보세요.

찬	송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토의 및 광고	사회자	
주 기도문	다함께	

제2단원

뿌리내리는 감리교회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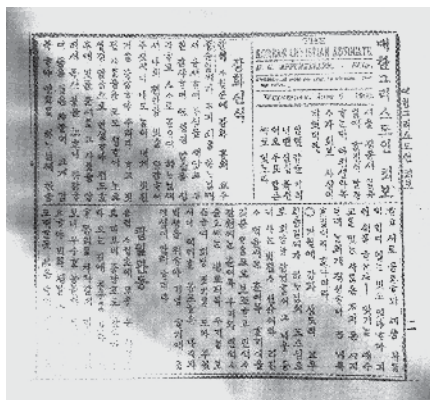
몸으로 읽는 성경

초기 교인들의 신앙실천운동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성경봉독	누가복음 10:25~28
요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10:28)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얻는 길을 물었습니다. 율법(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말씀을 외우고 풀이하고 가르치는 율법교사였지만 영생의 문제에 대해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 기록되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씀은 성경을 읽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성경읽기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00년 강화 북쪽 해안 홍의마을에 중순일이라는 부자 교인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중순일에게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중순일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임금님에게 만 달란트 빚을 졌으나 갚을 수가 없자 불쌍하



중순일 관력기사 (대한그리스도인 회보, 1900년 6월 6일)

게 여겨 빚을 탕감하여 주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잡아 옥에 가두었고 그 일이 임금님에게 알려져 결국 그도 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자였던 중순일은 이 말씀을 읽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난 뒤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 앞에서 중순일은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읽은 후 다음과 같 선언하고 빈 문서를 꺼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외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내

양력 수월분예 강화 후의 표우
종순일이씨가 주심을 세우고
서용서홍여 주심을 세우고
한감사하며 또 성경말씀을

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백 데나리온 빛을 탕감해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그러다 내가 천국을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이 자리에 같이 있던 교회 전도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순일은 마태복음 19장 21절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읽고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교회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모지를 구입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누가복음 10장 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각 지방과 고을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읽고 아내와 함께 봇짐만을 메고 남쪽 길상면으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후 사도행전 말씀처럼 “땅끝까지” 찾아다니며 전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석모도, 주문도, 웅진 등 외딴 섬을 돌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남은 일생을 가난한 전도자로 살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홍의마을에서 빛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경말씀대로 사는 종순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강화읍교회(현 강화중앙교회)를 다니던 과부 교인 김씨 이야기입니다. 다른 가족은 없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복섬이라 불리는 여종을 부리고 살았습니다. 80세가 넘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나가면서 한글을 배워 성경을 읽기 시작하던 어느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몸중 복섬이를 데리고 있는 것이 ‘매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후로 한 주가 지난 다음 교인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복섬이를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소? 또 내가 복섬이를 몸종으로 부리는 것이 땅에서 매는 것인 즉, 그리고서도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소?” 라고 말하며 복섬의 종문서를 종순일이 했던 것처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섬에게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이제 내 집을 나가도 좋다고 했는데 복섬은 그럴 수 없다고 제발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씀은 말아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결국 전도사의 조언대로 김씨 부인은 복섬을 양녀로 받아들였고, 종에서 양녀로 신분이 바뀐 복섬은 더욱 정성을 다해 김씨 부인을 섬겼습니다.

우리 초기 교인들은 성경을 순수하게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었습니다. 강화에서 어떤 교인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 하셨던 것처럼 진흙을 맹인 눈에 바르고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이같은 문자적 신앙을 미신이라고 염려했지만, 한국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감동을 글자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읽은 것이 아니라 행하기 위해 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영생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해결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눅 10:28).”

성찰을 위한 질문

- 1) 성경통독의 유익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체험한 것이 있습니까?

2) 성경읽기를 위한 구체적인 결심과 계획을 말해보세요.

찬	송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토의 및 광고	사회자		
주 기도 문	다함께		

제2단원

뿌리내리는 감리교회

7월

하나님나라 품앗이 날연보 이야기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성경봉독	누가복음 21:1~4, 고린도후서 9:10~11
요 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하게 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9:11)



가난한 과부의 두 렵돈 이야기는 헌신에 대한 모델로 자주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돈의 무게가 아닌 마음의 무게로 헌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정성과 믿음이 깃든 헌금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헌금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 대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자기 스스로를 드리는 사람들의 헌신으로 세워지고 확정됩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인들의 헌신이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헌금을 ‘연보(捐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초기 교인들은 특별하고도 특이한 연보를 했습니다. ‘날연보(日捐補, Day offering)’가 그것입니다. 날연보는 1904년 11월 평북 철산에서 열린 부흥사경회 때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당시 선교사였던 휘트모어의 보고를 보면 “교인들은 이웃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멀리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한 전도회를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좀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는 욕망이 솟구쳤습니다. 이런 욕망이 돈이 아닌 시간을 바치는 것으로 표현되어 구체적으로 바칠 수 있는 날수를 적어 바고는 개인적으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돈이나 쌀을 바치는 것이 연보였는데, 철산교인들은 물질 대신 시간을 바친 것입니다. 사경회를 통해 은혜를 받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날수를 적어서 바치고 그 날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 즉 전도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고 자기 돈을 들여가며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철산에서 시작된 날연보는 선천, 의주, 평양, 철원, 서울 등지로 확산되어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이천에서 열린 사경회에서는 남자들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 날을 바치겠다면서 날수를 말하거나, 매일 날을 바치고 싶지만 직업상 어려우니 매달 한 주일을 선택하여 전적으로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주일에는 예배당을 가야 하니 주일만 빼놓고 모든 날을 바

치겠다고도 했습니다. 강원도 이천에서만 300여 명의 교인이 1,721일을 바쳤습니다. 유급 전도인 10명이 1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날을 바친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 대신 시간을 바치는 날연보는 농경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품앗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선교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한국 특유의 토착적인 헌신제도였습니다. 이 제도가 선교사들을 통해 세계 교회에 소개되어 1920년대 아프리카에서 이 제도를 선택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만의 토착적인 ‘날연보’가 수출 신앙제도 1호가 된 것입니다.

‘날연보’가 더 발전된 형태로 나타난 ‘십일조회’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통에서 십일조는 ‘하나님의 몫’이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십일조는 신앙의 기준, 잣대의 상징이 됩



1920년 전도부인 (아래줄 중앙이 전삼덕)

니다. 1909년 9월 선교사들 사이에서 백만명구령운동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 평북 영변에서는 감리교 부인들을 중심으로 ‘십일조회’가 조직되었습니다. 돈이 아닌 시간의 십일조를 바치기로 서약한 부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1903년부터 영변에서 여성 사업을 담당하던 감리교여성선교사 에스티(E.M.Estey)는 부족한 일손을 도와줄 자원 전도인들을 확보하려는 계획으로 ‘십일조부인’을 모집하였는데 1년 52주 가운데 십분의 일에 해당하는 5주를 전도하는 일에 종사하기로 자원한 사람들의 모임인 ‘십일조회’가 조직된 것입니다. 처음에 10명이 자원하여 시작되었는데 2주 동안 성경과 기본교리, 전도법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나머지 3주 동안 둘씩 짝을 지어 농촌으로 파송하여 전도하도록 했습니다. 영변에서 시작된 십일조회에 대한 이



야기가 선교사 모임을 통해 다른 지역 선교사들에게도 알려지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는데 남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안방 깊숙한 곳까지 여성들만의 특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 에스더의 보고에 의하면 “주님께서 제게 이같은 기쁨과 평안을 주셨는데 이 정도밖에 드리지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마다 한 달은 집안일을 하고 나머지 날들은 주님께 바치기로 했어요” 라고 한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날연보와 십일조회는 물질보다 소중한 시간을 바치는 초기 교인들의 헌신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넉넉하게 연보를 할 줄 아는 초기 교인들로 인해 한국교회는 일찍이 자원전도와 자립교회의 전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교인들이 헌신 덕분에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 안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렵돈이야기가 우리 선교 초기 교인들의 모습에서 실재가 되었습니다. 감리교회 초기 교인들은 한국 교회전통을 수립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헌금에 대한 당신의 솔직한 생각을 말해보세요.

2) 시간, 물질 이외에 당신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 일까요?

찬 송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불드사
토의 및 광고 사회자
주 기도 문 다함께

제3단원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감리교회



아! 마시지 말라! 그 술 절제운동이 민족운동으로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성경봉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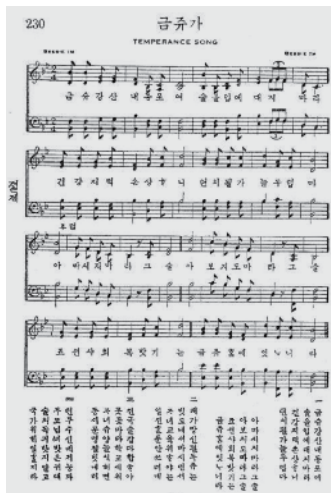
고린도전서 9:19~27

요 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
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
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25)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새벽마다 온 동네에 새마을노래가 울려 퍼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붕을 개량하고 길을 넓히며 생활환경을 바꾸는 새마을운동은 도박, 음주, 퇴폐향락 등의 문화로부터 건강한 삶을 이끄는 계몽운동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 속에 삶의 변화를 이끌며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절제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은 감리교회로부터 시작된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전국으로 퍼져 나가다가 자연스럽게 민족운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운동으로서의 절제운동이 민족운동이 되었을까요?

현재 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송가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래전 사용하던 찬송가에는 ‘금주가(禁酒歌)’가 있었습니다.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아 마시지 말라 그 술 아 보지도 말라 그 술 조선 사회 복 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1920년대 이화여전(현 이화여대)에서 음악을 가르치던 임배세가 작사·작곡한 찬송가로 주일예배, 사경회, 부흥회 때 자주 불렸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고 보지도 말라는 ‘금주’에 관한 가사가 1절이지만 2절부터 4절은 ‘금주해서 남은 돈으로 학교를 세워 자녀교육 시키자는 것’과 ‘술로 몸을 망치지 말고 건강하여 나라 위해 몸 바치자’라는 내용으로, 민족계몽운동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1930~40년대 교인들은 ‘금주가’를 마치 ‘독립운동가’처럼 생각하여 즐겨 불렀습니다. 이런 이유로 1942년에 남궁억 선생님이 작사·



금주가 (1920년대)

작곡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과 함께 금지곡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금주운동이 일어난 것을 1900년 이후로 보기도 하지만 감리교회는 이미 1897년 연회에서 금주를 공식적으로 결의하였습

니다. 당시 감리교회는 음주행위를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 교회법을 어기는 일, 부모형제 처자에게 광언지설하는 일, 자기 몸을 망하게 하는 일”로 규정했습니다. 금주, 금연운동은 윤리적인 절제운동이었지만,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로부터 불손한 운동으로 치부당했습니다. 담배처럼 술도 전매사업이어서 그 수익금이 총독부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절제운동은 일제를 향한 경제적 저항운동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금주, 금연운동은 1930년대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회운동이 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일제는 1910년 한일합방 후 실시했던 강압적인 ‘무단통치’에서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를 허락하여 불만을 해소하는 ‘문화통치’를 실시했는데, 외적으로는 자유를 허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보다 철저한 방법으로 우리의 민족정신과 독립의지를 말살하려는 문화적 침략정책이었습니다. 총독부가 일본인 학자를 동원하여 ‘일선동조동근론(日鮮同祖同根論, 일본과 조선의 역사의 뿌리가 같고 조상은 하나라는 의미)’을 내세우며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일본 보다 열등한 것으로 왜곡하거나 소멸시키는 한편 일본문화를 도입하여 우리 민족이 일본동화정책을 펼친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으로 인해 일본의 퇴폐문화가 들어와 청년과 학생들이 오염되고 우리의 문화적 전통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술과 담배, 아편, 성매매 같은 퇴폐문화의 폐해가 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개된 절



기독교중심의 금주운동을 알리는 기사 (대한매일신문 1934년 6월 11일자)

제운동이었고 그 중 금주운동이 핵심이었습니다.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에서 파견된 강사 틴링(C.I. Tinling)이 전국을 돌며 금주강연회를 열었는데 통역으로 참여했던 이화학당 교사 손메레는 감리교와 장로교의 여성지도자들을 모아 1924년 8월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를 창설합니다. 이것이 현재의 대한여자기독교절제회의 시작입니다. 상동교회 출신으로 이화학당을 졸업한 후 교사로 활동하다가 금주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교사직을 사임하고 절제회의 총무가 되어 금주강연회를 열었는데, 손메레는 청중들 앞에서 계란에 알코올을 부어 그것이 익는 광경을 보여주면서 술의 독성을 증명하였고, 당시 한 가구당 연소득이 360원도 안 되었는데 매년 술에 대한 세금으로 총독부에 들어가는 돈이 8,400만원이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민족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실제로 금주운동을 민족운동의 하나로 본 것입니다. 1930년 4월 30일자 기독교신보에 손메레가 쓴 기사가 있습니다.

“술은 사실 탄환없는 대포와 갓흔데 도로혀 용기를 준다구 밋게하였다. (중략) 조선의 금주운동은 모든 운동 중에 가장 큰 운동이다. 육을 살리는 운동이며 죽어가는 조선을 살리는 운동이다. 여러분은 때때로 왜 이 금주운동을 니저버리는가?” 손메레의 강연은 일본 경찰의 감시와 방해를 받았습니다. 강연장에는 경찰이 입석하여 내용을 점검하였고,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요시찰 인물’이 되었습니다.

절제란 알맞게 조절하고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감성적 욕구를 이성으로 제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는 이기기를 다루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초기 교인들에게 절제는 신앙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구원의 확증이었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민족을 일깨우고 바로 세우는 민족계몽운동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도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술을 세상에서 깨끗이 사라지게 만들겠다”라고 하며 금주라는 절제를 통하여 신앙인의 생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영국에서 감리교인은 금주운동가 내지는

금주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나’의 절제생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새롭게 세우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의 초기 감리교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예수를 믿은 후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2) 절제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 되는지 말해보세요.

찬	송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토의 및 광고	사회자	
주 기도문	다함께	

제3단원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감리교회

9월

교인들이 도끼를 들다! 애헬청년회의 국권회복운동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성경봉독	에스겔 22:23~31, 디모데전서 1:1~5
요 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 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1:2)

조선시대의 궁궐이자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장소, 덕수궁. 구한말 일제에 의한 강제침탈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예비 부부의 결혼 사진촬영장소이자,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가 되었습니다.



1896년 독립협회가 개최한 만민공동회의 애국상소운동

덕수궁 내에 있던 증명전은 1905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을사조약이 체결된 곳으로, 대한민국 역사의 아픈 현장입니다. 이곳이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1905년 덕수궁에서 벌어졌던 을사조약 이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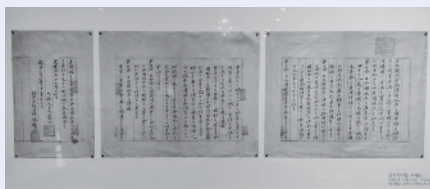
덕수궁 대한문 앞, 도끼를 둘러멘 청년들이 꿇어 앉아 통곡하며 소리쳤습니다. “전하! 대조선이 왜놈들의 보호를 받다니요, 천부당 만 부당하옵니다.” “전하! 차라리 저희 목을 치소서!” 1905년 11월 17일 밤, ‘을사보호조약’, ‘을사5조약’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기는 조약이 체결되자 수많은 유생들이 대한문 앞에 모여 조약 취소를 호소하는 상소운동을 벌였는데 그 가운데 도끼를 손에 든 채 상동교회에서 몰려나온 청년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의 도끼 상소운동을 주도한 상동교회 엽뮈청년회원들이었습니다. 1897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감리교회 청년단체로, 존 웨슬리의 출생지 이름을 따서 엽뮈청년회라고 하였습니다. 교육과 선교, 친교,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 신앙단체였는데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사회, 정치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에는 아주 강력한 반일 저항조직이 되었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기 위해 조약을 체결하자며 압박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일본이 한국을 보호해 줄 테니 주권의 상징

인 외교권을 이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905년 11월 일본의 압박은 더 거세졌고, 훗날 ‘을사오적’으로 불리는 이완용,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등 친일관료들의 압박도 거셌습니다. 결국 덕수궁을 에워싼 일본군에 포위된 채 고종황제는 중명전에서 ‘한일협상조약’이라 불리는 조약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을사조약 체결 직후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이 날, 목놓아 우노라!)”이라는 절규를 실은 황성신문은 폐간되었고, 내부대신, 학부대신, 외부대신, 참정대신을 역임하며 저항하다 시종무관장으로 밀려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약 반대상소를 올렸다가 감옥에 갇힌 민영환은 자결하였는데 그 자리에 피죽(血竹)이 돌아났습니다. 그러나 국민적인 저항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병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덕기 목사가 담임이었던 상동교회는 교회 안에 우리 문화와 민족 정신을 고취하는 공옥학교, 상동청년학원을 두어 이준, 이시영, 남궁억, 김구, 이승만 등 민족주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상동교회에서는 을사조약 직후부터 구국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초교파적으로 모였던 구국기도회 관련 기사가 대한매일신보 1905

년 11월 19일자에 실렸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시여 우리 한국이 죄악으로 침륜에 드렀스매 오직 하나님بات게 빌디업사와 우리가 일시에 기도하오니 한국을 불상히 녀이사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다니엘의 자기 나라를 위하여 간구함을 드르심갓치 한국을 구애하사 전국 인민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가 천국 백성이 되어



중명전



중명전 전사실의 을사늑약문

나라이 하나임의 영원한 보호를 받아 지구상에 독립국이 확실케 하여 주심을 예수의 일함으로 비압나이다”라는 기도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최재학이 인도하는 1차 상소단이 도끼를 어깨에 메고 대한문으로 갔는데 이준이 초안한 상소문을 읽기도 전에 일본수비대에게 끌려갔고, 교회에 남아있던 청년들이 종로로 나가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청년시위대와 일본군 사이에 투석전이 벌어지고 주모자들이 체포되었으나 이 일로 교인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상동교인 정순만은 평안도에서 힘이 센 장사들을 데려다가 교회 안에서 합숙을 하며 체력훈련을 시켰는데 이는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을 처단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한문 앞에서의 도끼상소, 그리고 요인암살계획까지 상황이 악화되자 당시 선교관리자였던 윌리엄 스크랜턴은 교인들이 과격해지는 것과 엽월청년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본래의 설립목적에서 상당히 벗어났다”라는 이유로 엽월청년회를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당시 국제적으로는 하와이에서 일본 수상 가츠라와 미국 국무장관 태프트가 일본이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묵인하고,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묵인한다는 내용의 비밀각서를 교환하는 ‘가츠라-태프 조약’이 체결되고, 일본과 영국이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일본이 한국 지배에 대한 암묵적 지지를 얻어내는 때였습니다.

도끼상소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는 극단적인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상동교회 청년들이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절실함은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상동교회 엽월청년회원들의 신앙고백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실천하는 용기 있고 담대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교회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말해보세요. 만약 지금 일제강점기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2) 목사가 길거리로 나가 구국기도회를 여는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제강점기 우리 신앙 선배들의 구국기도회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찬 송 582장 어둔 밤 마음에 잠겨
토의 및 광고 사회자
주 기도문 다함께

제4단원

역사의 모범, 감리교회

10월

목사가 된 머슴

한국교회 최초목사는 감리교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성 경 봉 독

고린도전서 1:22~31, 로마서 12:16

요 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린도전서 1:27~28)

한국교회 최초 목사안수식은 1901년 5월 14일 상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김창식, 김기범 두 분만 안수를 받았습니다. 감리교회는 제도상 연회에서 감독이 목사안수례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감리교회는 아직 연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한국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중국 화북연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정식 한국감리교회 조직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한국에서 행해진 목사안수식이었고, 최초로 한국인 목사가 배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1907년을 한국 최초의 목사가 배출된 시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신학교 과정을 마쳐야만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 최초의 공식적인 목사안수식은 1901년이라는 사실입니다.

1901년 5월 14일은 중국화북연회 한국선교회 연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날 한국 개신교회 목사가 최초로 탄생하였습니다. 감리교회 기관지인 「신학월보」 1901년 6월호를 보면 목사 안수의 의미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환회에서 제일 긴요한 일은 대한 전도사 중에 김창식과 김기범 양씨를 선정하여 성품 주심이니라, 대개 우리 대한 예수 각명교회 중 전도하는 선생이 많으되 그중에 목사품이 있어 세례 줄 권세와 혼례를 행할 권세 중에… (중략)



김창식 목사

우리 대한 미이미감리교회 중에 품을 가진 목사의 수효는 가장 적고 추수 얻어둘 것이 많아 구주 분부하신 대로 우리 연환회에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구하여 일꾼을 보내어 추수하게 하여 주소서 하였는데 성신이 정령 인도하심으로 김씨 양제를 택하여 이 엄한 업을 맡게 하였느니라” 이날 안수를 받은 두 사람 중 김창식은 선교사들로부터 ‘조선의 바울’이란 칭



호를 받았던 한국 개신교 개척시대 전설적인 전도인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김창식의 영문표기가 'Kim Changsiki'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시기'라고 읽게 되는데, 이는 김창식을 사람들이 '어이, 창시기'라고 하대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황해도 수안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김창식은 자라면서 농촌생활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15세에 가족들 몰래 가출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남의 집 머슴살이였습니다. 그렇게 머슴부터 출발해서 마부, 지계꾼 등 밑바닥 일을 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29세에 결혼을 하고 서울 남대문에 정착을 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이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헛소문이 퍼지면서 흥분한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과 학교를 때려 부수곤 했습니다. 김창식도 그 소문을 듣고 선교사의 만행현장을 잡기 위해 마침 사람을 구하고 있던 올링거 선교사의 집에 이른바 '위장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 아무리 살펴봐도 소문 같은 '만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들은 예의바르고 정중했으며, 무엇보다 올링거 선교사와 친구 선교사들이 고종임금을 자주 만나는 위치에 있지만, 하인인 자신을 향한 손길이 너무나 따듯했습니다. 하인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조선의 양반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감동한 김창식은 선교사들의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어 취업 2년 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1893년 의료선교사 윌리엄 제임스 홀과 짝이 되어 평양선교를 개척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일로 평양사람이 주목을 받던 중 1894년 5월 평양기독교도박해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제임스 홀이 미국 외교 라인으로 조선정부에 압박을 하여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거의 시체 상태로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배교를 강요받으며 고문당할 때 김창식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로제타 홀의 1894년 5월 10일 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홀 박사가 그(김창식)를 보기 위해 갔다. 그는 좌절감에 빠져 자포자기한 것 같았다. 계속되는 심한 매질과 죽음의 위협에 이 불쌍한 친구가 수백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략) 그들이 김창식



1898년 본처전도사 및 교인연합모임, 정동제일교회
(왼쪽이 김창식, 중간이 아펜젤러, 오른쪽이 김기범)

을 오씨나 한씨보다 더 심하게 때리고 위협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포기하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풀려나면 복음 전파를 그만 두겠느냐는 물음에도 계속 전파하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바울(Korean Paul)로 인해 주님께 찬양을 드린다.” 또 다른 로제타 홀 선교사의 기록(1929년 6월, The Korea Mission Field)에는 “내가 본 김창식 목사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섬겨온 40여 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그의 고귀한 모습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와 같은 강직한 사람이다. 그는 한국에서 내가 사역하는 데 있어 개인적으로 나에게 가장 커다란 힘이 되었던 자이다. 그의 모범은 우리 모든 기독교회에 있어 가장 커다란 영감을 안겨준다(중략)” 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창식 목사님은 1924년 정년 은퇴하기까지 영변, 수원, 해주 지방을 돌아다니며 125곳에 교회를 개척하였고 48군데 예배당을 건축 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런 그에게 ‘조선의 바울’이란 명칭을 붙여 주었습니다. 머슴 출신으로 한국 최초의 목사가 되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낮은 자’의 겸손과 순종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이, 창식이, 창식이!” 하는 소리를 듣고 선교사들은 그의 이름이 ‘김창식이’인 것으로 착각하고 영문으로 표기할 때, ‘i(이)’자 하나를

더 넣었지만, 김창식은 굳이 그것을 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낮은 자리’가 자신이 떠날 수 없는, 떠나서는 안 될 은혜의 자리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최초 목사안수는 한국교회 최초 목사안수였습니다. 장로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학교 졸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이야기로 진정한 목사요,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지도자의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2) 여러분과 교회 목사님과의 관계와 김창식과 홀 선교사와의 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찬	송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토의 및 광고	사회자	
주 기도 문	다함께	

제4단원

역사의 모범, 감리교회

11월

목사를 부끄럽게 만든 권사 신사참배거부 최인규 권사의 순교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성경 봉 독	시편 8:1~9
요 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8:4~5)

‘신사참배’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대부분 망설이지 않고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순교하신 대표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밖에 없나요?”라고 한번쯤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장로교회에 주기철 목사가 있다면 감리교회에는 최인규 권사가 있습니다. 최인규 권사는 감옥에서 동방요배까지 거절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분입니다. 더구나 최인규 권사는 흔적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아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다가셨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최인규 권사의 신앙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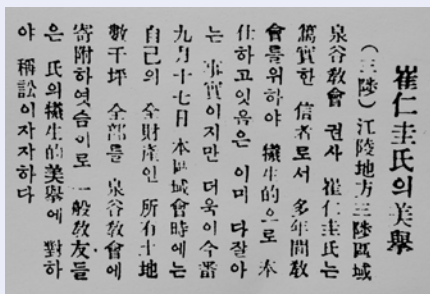
“목사를 부끄럽게 만든 권사”라는 별칭이 만들어진 것은 대전형무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죄와 불경죄로 복역중이던 이진구 목사와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훗날 이진구 목사의 회고를 재구성한 자료에 의하면 신사참배뿐만 아니라 국민서사와 동방요배까지 거절하고 간수들에게 매를 맞는 것이 안쓰러워 “권사님, 동방요배나 국민서사는 그냥 한다고 하세요”라고 했다가 **“목사님은 국민서사와 동방요배를 기쁨으로 하십니까? 나는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을 마십시오”**라는 답을 듣고서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목사로서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한없이 부끄러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최인규 권사는 63세, 이진구 목사는 42세였습니다. 최인규 권사는 2년 형을 받았는데 형기를 마치지도 못하고 수감 1년 만인 1942년 12월 16일 형무소 병감에서 별세하였습니다. 별세 소식을 들은 집안 조카뻘 되는 최종대가 대전에 가서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을 가져왔는데, 장례도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야산에 묻어두었다가 해방되는 해 10월 삼척교회 입구에 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듬해 ‘최인규 권사 순교기념비’를 무덤 위에 세웠습니다. 현재 이 기념비는 도시계획으로 인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1986년 11월 천곡교회에 ‘최인규 권사 순교기념비’를 세우면서 그 옆에 자리잡았습니다. 최인규 권사는 강원

도 삼척군 북삼면 송정리
(현 동해시 송정동)에서
출생한 강릉 최씨 집안
사람입니다. 부인은 일찍
죽고, 행복하지 않은 가
정생활 때문에 마을에서
는 ‘술 잘 마시는 난봉꾼’
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
니다. 북평교회 김기정
목사와의 만남 이후 방탕
한 생활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전덕기 목사의
‘술의 해됨’이라는 글을
읽고 회개하여 술, 담배
를 끊고 가정생활에도 충
실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

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8년 만에 북평교회 권사가 되었
다가 천곡교회로 옮깁니다. 천곡교회는 주막을 하다 며느리의 전도로
북평교회 교인이 된 권화선 속장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6~7년 동
안 북평까지 먼 길을 걸어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이 사는 마
울에도 교회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하여 재산을 털어 1932년 8칸짜리
초가 예배당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할 때 도움이 되었던 최
인규 권사에게 설교자로 함께 사역하자고 제안하여 권화선 속장은 전
도부인으로, 최인규 권사는 설교와 가르치는 일로 천곡교회의 두 기
둥이 되었습니다. 1935년 최 권사는 자신의 전 재산인 토지 전부를
팔아 논 1,900평, 밭 4,200평을 마련, 교회에 헌납하였습니다. 또 시
장에 나가서 집 없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농
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처럼 서로 통용하



최인규기념교회 (동해천곡교회)

최인규 권사 재산을 교회에 헌납한 기사
(기독신보 1934년 10월 30일)

는 신앙공동체를 가꾸었던 것입니다. 최인규 권사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수시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며 거부하도록 설교하였습니다. 신사참배 같은 ‘종교적’행위는 물론이고 동방요배나 일장기 경례 같은 ‘정치적’행위도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세금이나 부역도 “나는 생명과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하늘나라 백성이다. 따라서 하늘나라 일이 아닌 부역이나 세상일은 할 수 없다”라며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1940년 5월 삼척경찰서에 연행되어 온갖 고문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협박하고 설득해도 넘어가지 않자 경찰은 최권사에게 망신을 주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주려는 속셈으로 최권사에게 통지계를 지우고 ‘나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최인규요’하면서 동네를 돌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권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다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내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최인규요! 내가 예수를 믿는 최인규요!’ 라고 외치며 동네를 돌았다고 합니다. 체포된 후 경찰서의 혹독한 고문으로 고통받는 것이 안타까워 친구인 북평교회 차국성 권사가 평소 안면이 있던 일본인 경찰서장을 찾아가 ‘최인규가 예수 믿기 전 정신병을 앓은 적이 있는데, 그 병이 재발한 것 같으니 풀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장이 ‘최인규가 미친 것이 아니고 당신이 미쳤소. 당신도 믿으려면 최인규처럼 믿어’라고 하는 바람에 얼굴을 못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당시 감리교회는 예배에서까지 동방요배와 황국신민서사를 제창하고, 모든 행사에 여성교회와 교회학교어린이들이 동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른바 1940년 4월 8일 공포된 [종교단체법]으로, 정체성없는 변질된 교회로 전락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교회도 이를 피할 수 없었는데 세금부과와 부역지시가 있었으나 일본을 위한 일기에 최권사는 단호하게 “나는 재산과 생명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일을 하지 부역이나 다른 것은 못 하겠다”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최인규 권사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 삶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운 믿음의 선조입니다. 최인규 권사는 차가운 감옥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삶은 경이롭게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최인규 권사의 ‘순교’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가 저항하고자 했던 ‘우상’이 무엇이었는지,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집어삼키려고 새로운 얼굴과 모습으로 덤벼드는 우상은 과연 무엇일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 1) 동방요배, 신민서사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신사참배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 2)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로 생각하고 참여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일제강점기에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찬 송 323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토의 및 광고 사회자
주 기도 문 다함께

제4단원

역사의 모범, 감리교회

12월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전도의 기회!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123장 저 들 밖에 한밤중에

성경봉독

누가복음 1:8~14

요 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누가복음 1:14)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행사는 어땠을까요? 1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오신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살펴 보고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봅시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또 계승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우리의 성탄절이 어때야 하는지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행사는 당연히 외국인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84년 12월 25일, 장로교 의료선교사였던 알렌 부부가 선물을 준비하고 미국 공사관 직원과 식사했던 것이 첫 행사였습니다. 18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스크랜턴모사선교사 등도 가족끼리 선물을 교환하고 식사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1886년부터 조금 달라졌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외국인 20여 명을 초청하여 파티를 했고, 스크랜턴 대부인(메리 스크랜턴)은 이화학당 학생들에게 성탄 나무를 나누어주었습니다. 한국인이 참여하는 성탄 예배는 1887년부터였습니다. 1895년에는 노블 선교사가 과자를 곁고, 과일을 준비하고 ‘성탄절 저녁만찬’ 초대장을 돌렸습니다. 처음이라서 얼마나 참여할지 궁금해하며 기다렸는데 대낮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어 이른 시간에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블 부인이 오르간을 연주했고, 서툴지만 한국말로 들려주는 성탄 이야기에 모두 집중하여 정말 대단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성탄절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인 토착교회는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한국식으로 표현하는 성탄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1899년 1월 4일자 「대한 그리스도인회보」에 실린 인천 담방리교회(현 만수교회)의 성탄행사를 보면 예배당 앞산에서 켄 푸른 소나무로 아치문을 만들고, 36개의 종이를 말아 안에 촛불을 넣은 등불을 달고, 교회 문 위에 태극기를 세웠는데 이 준비를 위해 교인들이 헌금한 돈이 4원 50전이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54명, 구경꾼은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복정채 권사가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을 설명했는데 사람들 모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인천 우각동교회(현 내리교회)도 예배당 안과 밖을



찬란하게 장식하고 행사를 가졌는데 200명이 모였고, 서양인 4명과 청국 영사 부부가 참석했습니다. 밤이 되어 교인들이 여러 색깔의 등불을 들고 교회를 돌았는데 정말 멋진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이날 설교는 존스 선교사가 했고, 이에리스벳씨가 수건으로 쓴 향아리를 존스 선교사에게 건넸는데 그 안에 금 500돈이 들어있어 모두가 놀랐고, 그 돈으로 사역자들과 어려운 교인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구경꾼은 300명 정도였는데 이런 현신적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시다. 강화 교향동교회(현 교산교회)에서는 김상임 전도사가 성경을 읽고 애찬례를 했고, 태극등 37개를 달았고, 손님을 포함하여 60~70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달성교회(현 상동교회)는 빨간 구슬로 십자가를 만들어 밖에 높이 달고, 스크랜턴 선교사가 환등기로 성탄 관련 그림을 보여주었고, 학생들이 영어로 성탄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부평 굴재교회(현 계산중앙교회)는 등불 250개를 달고 십자가와 태극기를 세우고 청송 홍예문을 세우고 폭죽을 올리고, 교인 52명이 89장 찬송을 하고 속장 이영순 씨가 논설을 하고 교인들이 기쁨으로 천부 전에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고, 성신을 받은 마음으로 간증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데 여러 동네 사람들이 남녀노소 없이 구경하여 회당 문이 다 상하도록 들어오며 **‘돌아오는 주일부터 다 예수를 믿겠다 하고 우리가 예전에는 구세 교회가 이렇게 옳은 줄을 몰랐더니 이제 본즉 좋은 일로다 하고 모든 교우들이 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는 기사가 1899년 1월 4일자 「대한그리스도인회보」에 실렸습니다.

찬송과 성경, 기도, 설교, 헌금, 애찬 등으로 이루어지는 성탄절 행사는 서양의 문화였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교인들은 여기에 성탄절을 준비하여 서양과는 다른 장식을 했습니다. 십자가와 태극기, 태극등을 내건 것입니다. 십자가는 복음, 태극기나 태극등은 충군애국 즉 나라사랑의 표현입니다. 담방리교회의 십자가 36개나 교향동교회의



강화 교산교회 기독교역사전시관에 설치된 교향동교회 초기 성탄절 풍경

태극등 38개는 당시 고종황제의 나이 38세(만36세)를 상징한 것으로 예수님의 생일에 대한제국 황제의 만수무강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록에서 보듯이 교인이 아닌 구경꾼들이 성탄 행사에 와서 보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초기 성탄절 축제는 구경꾼,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인과 이방인 사이, 기독교와 민족 사이에 있던 불신과 의심의 담이 무너지고 기쁨 가운데 하나되어 평화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성탄절이었습니다. 나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민족을 위한 성탄 문화를 만들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초청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행사로서 사회 문화적으로 미친 영향력이 많았던 것이 한국 초기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초기 교회들처럼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준비하셨습니까?

2)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찬	송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토의 및 광고	사회자		
주 기도문	다함께		

미자립교회 목회자 및
해외선교사를 위한

긴급의료기금 모금 마스크 사업



용 도 : 긴급 수술 및 질병 치료비 지원

대 상 : 미자립교회 목회자 및 해외선교사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1-090104 예금주/ 기독교대한감리회

구매문의 : ☎ 02-399-4347, 4349 (사회봉사부)

[사용용도]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사업
(여선교회 등)

연말시상
(임원, 교사, 찬양대,
속회지도자 등)

지역사회
선물
(선교용품)



KF-94 3D마스크
20,000원 ⇨ 15,000원(할인)
(30개 1BOX)



3중 보호 일회용 마스크
8,000원 ⇨ 5,000원(할인) (50개 1BOX)



KF-AD 비말차단 마스크
15,000원(50개 1BOX)

*그 외 제품 : KF-94 2D마스크(30개 1BOX),
유아용 일회용 마스크(50개 1BOX)

이 사업은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시는 어느 장로님이
감리교회의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제조 원가로 공급하여 이루어집니다.

최고급
국내산 재료 및 제조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감리회 배지를
가슴에 다는 순간
선교사 긴급 의료기금을
지원하시는 것입니다.**



배지 2,000원

타이슬링 5,000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사회봉사부 TEL 02-399-4347~9

우리은행 1005-201-090104 / 예금주: 기독교대한감리회